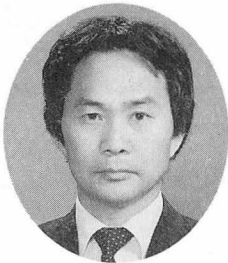


불합리한 세제개선

더 이상 늘출 수 없다



정찬길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UR협상타결에 따르면 1997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은 완전개방되고 관세는 현행 양허관세 25%가 33%로 인상되어 2004년까지 매년 하향조정으로 10%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1995~1997년까지 1992년도 소비량을 기준하여 매년 일정량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데 지육기준으로 1995년에 21,930톤, 1996년에 29,240톤, 1997년 1~6월에 18,275톤의 수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소 시장 접근수입량 21,930톤은 국내생산량 64만여 톤의 3.3%로 양적으로 무시될 수 있으나 그 파생적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돼지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은 돼지고기정책의 완전철회를 의미한다. 즉, 생산·소비·수입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철저한 배제,

수입할당제의 붕괴와 관세제도의 전환, 수입외국산과 국내산의 이중가격의 형성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저가형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산 돼지의 생산비의 절감은 경쟁력 제고의 최대의 과제이며, 이는 생산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의 절감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과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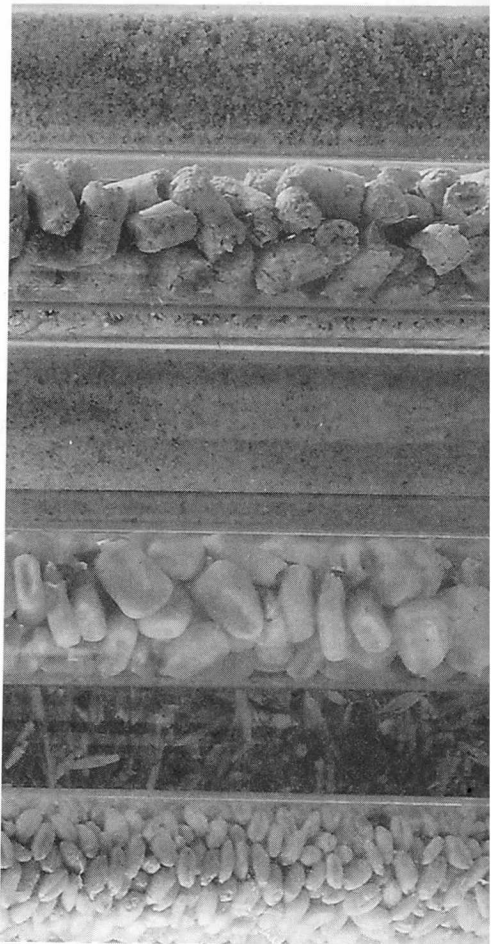
양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경원이 조세감면법 시행령하에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연내에 부분 수정한 후 내년부터 확대해나갈 일련의 조치는 그 합리성과 국제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양돈농가들의 불안을 더해주고 있어 재고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즉, 재경원이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면 실시하지 않고 1996년부터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돼지의 경우 지금보다 20%가 늘어난 돼지고기사육규모 200두에서 240두로 상향조정된 정책의 불합리성이다.

돼지사육규모의 시계열적 변화와 생존성을 보면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에 대한 재경원 방침의 불합리성이 잘 입증되고 있다. 1989년 12월 이후부터 1995년 9월까지 규모별 사육동향을 보면 99두이하의 사육가구 두수는 189,228가구에서 35,886가구로 크게 줄었고, 100~299규모는 5,384가구에서 6,037가구로 정체상태에 있고, 300~499두규모는 1,746가구에서 2,381가구로, 500~999규모는 776가구에서 2,471가구로, 1,000~4,999규모는 309가구에서 981가구로 크게 증가하여 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대규모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돼지생산에 있어서 공헌도 측면에서 보면 1984년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0.11%의 농가가 전체의 22%의 돼지를 사육한 반면에 1993년에는 3.64%의 농가가 전체의 47.7%의 돼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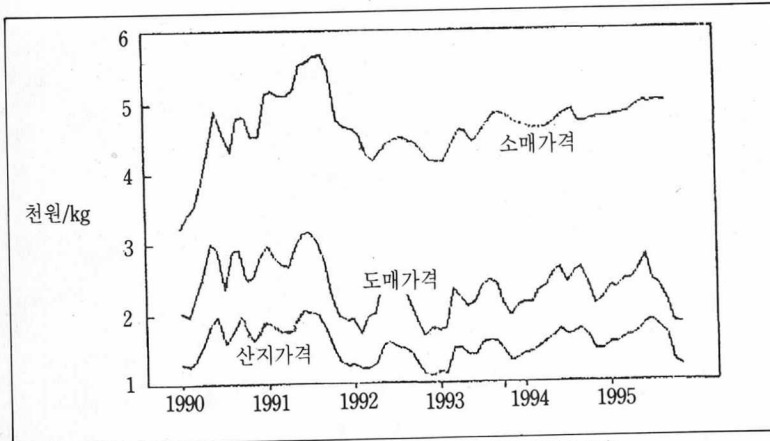
사육하였다. 한편, 소규모인 10두 미만은 1984년 88%의 농가가 전체의 18.8%를 사육한 반면 1993년에는 56.3%의 농가가 전체의 1.5%의 돼지를 사육하는데 불과하여 그 공헌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규모별 호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500~999두의 규모는 1984년에 0.07%의 사육농가가 5.8%의 돼지를 사육하는 반면 1993년에는 2.7%의 농가가 21.9%의나 차지하여 주력사육규모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양돈산업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산업자체가 적자생존 생산체제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산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경영규모로 스스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전체 양돈산업의 약 82% 이상이 전·기업형태로 전환되어 양돈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사육농가의 소수화와 전업화가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에 사육가구의 측면에서 공헌도는 낮지만 약 63%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한 돼지사육농가들의 사회적 측면도 동시에 적극 배려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규모의 변화를 방관한 채 획일적으로 정책이 적용되면 기회주의적 돼지사육농가들만 유리해져 직업의식이



강한 순수 양돈농가의 성취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며 경쟁력의 제고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돼지고기 시장의 수입개방 이행과 최근의 양돈산업의 국내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세계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



〈그림1〉 돼지산지, 돼지고기도매·소매 가격, 1990.1~1995.11)

〈표1〉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가능성

구분	생산성	사료효율개선	부가세	계
개선 원가절감률	4두 이상 9.6%	0.1배 이하 1.5%	영세율적용 5%	16.1%

자료 : M농장

다. 특히 〈그림1〉에서와 같이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는 돼지 가격은 1992년말과 1993년초의 최악의 상태에 준하는 약 1,200원/kg에 이르고 있어 생산비의 절감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양돈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사육두수가 1994년 590만두에서 1995년 9월 현재 649만두로 증가하였고 전문기관에 의하면 1996년에는 694만두로 1994년대비 100만두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이 과잉되면 1996년 역시 돈가가 낮게 형성될 것으로 경기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양돈농가의 비용절감은 더욱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돈농가의 생존력 향상과

경쟁력의 제고는 ① 산업구조의 전환(경영의 규모화, 산업의 계열화, 사육의 집단화) ② 생산성 향상 ③ 시설과 기계의 근대화 ④ 생산비 절감 ⑤ 위생 및 방역의 개선 ⑥ 품질의 고급화 등 많은 분야가 있으나 이들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개선과 발전이 성취되고 있으나 사료비의 절감을 통한 생산비의 감축이 지연되고 있다. 생산비의 약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는 관련세제의 개선과 조속한 시행의 지연으로 절감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995년에 11%나 인상된 배합사료료가 가격은 1996년에도 원료옥수수 가격의 인상으로 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

고 있어 더욱 불만이 가속되고 있다.

생산비의 약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절감과 사료효율의 향상을 통한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자가배합사료의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료비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질의 양돈사료 배합공식개발과 생산을 위한 사료의 검사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의 감면조치를 취함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다. M농장의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돼지생체 1kg당 55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은 양돈산업의 전환기적 구조 조정 추세가 소수에 의한 다두사육으로 이루어져 전업적 양상과 돼지고기시장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래에 변모하고 있는 양돈경기를 관망할 때 1996년의 경기가 매우 불투명하고 배합사료 가격의 재인상 징후가 뚜렷하므로 조속히 수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